

서민 애환 달래주던 동네 목욕탕 사라진다

광주 2017년 208곳→작년 143곳 31% ↓
전남 309곳→278곳 10% 줄어 하락세
치솟는 연료비·이용객 감소에 폐업 ↑

서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던 동네 목욕탕이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제통계포털에 따르면 광주지역 목욕탕은 지난 2017년 12월 208곳에서 지난해 같은 달 143곳만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31% 감소한 수치다.

전남 역시 같은 기간 309곳에서 278곳으로 10% 감소하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동네 목욕탕이 사라지는 이유로 업주들은 치솟는 연료비와 이용객 감소를 꼽고 있다.

최근까지 광주에서 목욕탕을 운영했던 서모(60대) 씨는 “코로나 이전에는 그나마 유자가 가능할 정도의 손님 유입이 있었고 코로나 시기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지만 각종 지원금

로 버틸 수 있었다”며 “요즘은 오는 손님도 눈에 띄게 줄었고 몇 년 주기로 수천만원이 드는 시설 보수 비용에 전기세와 가스비까지 올라 더는 감당하기 어려워 영업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광주 목욕탕에 부과되는 영업용2도 시가스 요금은 지난 2023년 189원에서 올해 1월 21.1원으로 올라 11.6% 상승했다. 목욕탕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전력(갑) 저압 요금’도 기본요금은 동일하지만 2023년 1382원에서 지난해 기준 1432원으로 3.6% 인상됐다.

광주 지역 전체 목욕탕 평균 요금 역시 2023년 12월 7천400원에서 2025년 12월 7천800원으로 5.4% 올랐다. 전남도 같은 기간 7천889원에서 8천444원으로 7.3% 상승했다.

각종 운영비 부담이 커지면서 문을 닫는 개인 업주들이 늘고 있지만 전남에서는 대중목욕탕이 단순한 영업시설을 넘어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 복지공간으로서 직접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06년부터 공중목욕탕이 없

는 면단위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 공중목욕탕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공중목욕탕 1곳당 연간 3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노인들이 무료 또는 1천원의 이용료만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현재 전남도 20개 시·군에도 또는 시·군이 건립한 고령층 대상 농어촌 공중목욕탕 144곳이 운영 중이다.

지역별로는 신안 14곳, 해남 13곳, 고흥 12곳, 나주 11곳 등 순으로 분포해 있으며 각 시·군은 노후 시설을 중심으로 보일러와 물탱크, 배관, 정화조 등 개보수와 환경 개선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 2024년 공중목욕탕 1곳당 연간 2천만원이던 운영비 지원을 지난해 3천만원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과 노인 이용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태호기자

광주은행, 광주FC 2026 후원금 10억 전달

누적 70억...지역 대표구단과 4년째 동행

광주은행은 지난 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FC 홈 개막전에서 광주FC의 2026 시즌 선전을 기원하며 후원금 10억원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노동일 광주FC 대표이사, 정일선 광주은행장이 참석해 지역 대표구단의 힘찬 출발을 함께 응원했다.

광주은행은 광주FC의 메인 스폰서로서 2023년부터 매년 10억원씩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진출을 기념해 30억원의 후원금을 추가 지원하며 구단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스포츠 저변 확대에 힘



이러한 지속적인 지원에 힘입어 광주FC는

사·도민 구단 최초로 아시아챔피언스리그 8강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며 구단 역사에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다. 지역 구단의 국제무대 성과는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올해 전달한 10억원을 포함하면 광주은행이 2023년 이후 광주FC에 지원한 후원금은 총 70억원에 이른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 스포츠 활성화와 건전한 응원 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동행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광주FC가 보여준 도전과 성장은 지역민 모두에게 큰 자부심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광주FC가 더 큰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만기자

광주경총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중요”

중상·지방 협력 지중해 프로젝트 추진

소규모·취약 사업장 사고위험 감소 기대

광주경총자총협회는 9일 “지중해 프로젝트(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가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소규모·취약 사업장의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한 첫 전국 단위 협력 모델

이라는 점에서 정책적·현장적 중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추진하며 2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핵심 대상은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렵고 기존 지원이 잘 닿지 않던 소규모 사업장, 영세 제조·건설 현장, 외국인노동자 등 안전 취약계층이다. 광주경총은 “지난해 공동관리자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현장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노력을 해왔다”면서 “왜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한가에 대한 회원들과 소통하면서 중대재해는 대기업보다 안전관리 체계가 취약한 소규모·하청·지역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기존 중앙정부 지도·점검이 물리적으로 모두 커버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경총은 “지중해 프로젝트는 중앙은 제도·재정을 지방은 밀착 집행이라는 역할분담을 통해 말단 현장까지 정책효과를 전달하는 통로를 여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채만기자



목포상공회의소는 9일 목포상의 중회의실에서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관 일행과 함께 양국 경제·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목포상공회의소 제공>

목포상의-주한 남아공대사관 경제·산업 협력 간담회 개최

주한 남아공상의와 MOU 체결

양국 기업 교류 방안 논의

목포상공회의소는 9일 목포상공회의소에서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관 일행과 함께 양국 경제·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상공회의소와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현택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신디스와 음쿠쿠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티머시 디킨스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상공회의소 회장, 칸체 세카타와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관 1등 서기관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전남 서남권 지역의 경제·산업 현황이 소개됐으며 양국 기업 간 무역 및 투자 확대와 산업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해 폭넓은 의견이 오갔다.

특히 해양·물류, 에너지, 제조업, 친환경 산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양국 기업 간 실

질적인 협력 모델과 기업 교류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목포상공회의소와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상공회의소 간 전략적 협력을 위한 MOU 체결도 이뤄져 향후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 교류, 공동 사업 발굴 등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방문단은 이후 HD현대삼호(주)와 ㈜대창식품을 찾아 조선·해양 산업과 김 제조업 현황을 직접 둘러보며 지역 산업 현황을 살펴봤다.

정현택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방문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지역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양국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교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상공회의소는 앞으로도 해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투자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채만기자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 약속

RE100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다양한 식재료를 모두 만날 수 있는

남평 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1, 6일로 끝나는 날

전국최초 퓨전시장

목사고을 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4, 9일로 끝나는 날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5일장

영산포 풍물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0, 5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후원 : **NA JU 나주시** 광고문의 : 062)650-2099